



# 일본 톤세제도 도입 자민당의 의석수 약화로 적신히

## 최근 참의원 선거에서 야당세 확대로 도입 불투명

최근 실시된 일본의 참의원선거에서 톤세제 도입을 적극 추진했던 자민당이 과반수 의석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야당의 협조없이 톤세제도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본 선추협회의 마에카와 회장은 9월26일 정례회견에서 2008년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톤세제에 대해 “직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의 다수의석 확보실패로 야당의 이해를 얻지 않으면 톤세제 도입이 어렵다”고 밝히고, 향후 특히 민주당의 의원들에게 톤세제를 설명해 이해를 구하고 싶다고 하며, 국회의 정세변화에 부응하여 민주당과의 협력을 강화할 뜻을 비쳤다.

특히, 마에카와 회장은 “취임 후 국회의원들을 다양하게 접촉하고 있지만, 후쿠다 정권의 출범으로 어떤 체제가 될지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조만간 국회의원 100여명에 대해 참석을 요청,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요망하는 톤세제의 이해가 깊어 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에카와 회장은 “왜 톤세제인가하는 논의는 있을 것이나, 협회의 입장은 국제경쟁을 하는데 있어서 세계의 70% 가까운 배를 운항하는 나라의 선사가 이미 톤세제를 도입하고 있어, 같은 씨름판 룰로 국제경쟁을 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불리한 상황에서 경쟁하면 시간이 갈수록 경쟁력을 상실한다”며 톤세제 도입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마에카와 회장은 또 “해운회사가 돈을 벌고 있는데 감세하는 문제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지

만, 이 상황이 언제까지나 계속 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며, 해상운송을 담당하는 일본 선사가 국제경쟁에 살아남아 건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곧 무역물자의 안정수송을 통해 일본의 경제·국민 생활에 공헌할 수 있기 때문에 해운업계에서는 톤세제 도입을 요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마에카와 회장은 “일본선사들은 일본에 기반을 두지만 국제경쟁에 노출된 산업으로서 국내 여타산업과는 약간 다른 생각이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며, 11월부터 12월 초에 걸쳐 톤세제 동비의 필요성을 각계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에카와 회장은 후유시바 국토 교통상은 아베 내각 시대부터 톤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고 있어 재임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말라카해협에서의 국제협력과 관련해서는 9월초 싱가포르 회의에서는 말라카·싱가포르 해협을 지나는 선박으로부터 징수하는 분담금의 구조는 통항료가 아니고 자발적인 협력의 구조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내년 10월에 열리는 말레이시아 회의에서 구체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에카와 회장은 외국인 선원문제에 대해 대량의 신조선을 발주하고 있어 선박 직원의 수급은 상당히 타이트해 지고 있으며, 마지막의 임금교섭은 리즈너블한 수준의 임금인상이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